

2016.03.18

주간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Contents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SK, 베트남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 ▶ 베트남 '현대 힐스테이트' 건설한류 이끈다
- ▶ 한국 CJ, 베트남 육가공 대기업 Vissan의 주식 4.18% 취득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미국 혁신창업 로드쇼
- ▶ 베트남, 자본시장 개발과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위해 IFRS(국제회계 기준) 필요
- ▶ 해외 펀드 PDR(부동산 개발 주식회사 펀드)에 투자
- ▶ 호치민시, 미국 투자 물결 기대
- ▶ 구직자에게 우량 기업 톱 100, Unilever가 1위 유지
- ▶ 태국 SCG, 베트남의 플라스틱 시장 지배, 인수 통 자금 60억 달러
- ▶ 파리 공항 공단 7%출자, 일본의 ANA도 관심 갖는 베트남 항공사

◆ 베트남기업 동향

- ▶ 젯스타 퍼시픽, 새로운 결제 수단 payoo 선보여
- ▶ 중앙은행, 2016년 통화정책 수행 지시서 발행
- ▶ 페트로 베트남, 자회사 PV오일 주식의 최대 25% 매각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비정부기구 원조활동 외국인 전문가들 개인 소득세 면제 받는다
- ▶ 익스피디아, 베트남 다낭 호텔 50곳 할인 판매
- ▶ 호치민시 인프라 발전을 위한 PPP(민간투자사업)유치 주목
- ▶ 2015년 국가예산 적자 256 조 VND
- ▶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 적용
- ▶ 외화의 수취 및 지급 서비스 안내
- ▶ 베트남 2월 무역 수지 1.9억 USD 적자, 연초 2개월간은 흑자 유지



대한상공회의소

- ▶ 베트남 제화 업계 발전 계획 짜지만 급격한 성장에도 국제 경쟁에 대응 미흡
- ▶ 전력 공사, 건기 전력 공급 대비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에 차질 우려
- ▶ 고속 도로 망 발전 계획 승인, 2020년까지 총 연장 6500km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SK, 베트남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 SK 주식회사 C&C는 베트남에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 SK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현지 1위 교통정보시스템 회사인 'ITD'와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번 MOU는 SK의 통합 ITS 플랫폼인 '넥스코어-ITS'를 높이 평가한 ITD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교통상황 감지 시스템, 통행료 징수 시스템, 주차위반 단속시스템 등의 개발·운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임
- SK와 ITD는 테스트포스를 운영하면서 넥스코어-ITS를 기반으로 삼아 베트남 주요 도시별 교통상황에 맞는 ITS 사업을 공동 추진함
- 안희철 SK 제조사업부문장은 "ITD와 협력해 베트남 ITS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ITS뿐만 아니라 스마트 융복합 보안 등 다양한 사업 발굴도 강화하겠다"고 말함
- * 출처: Yonhapnews, 03.15

베트남 '현대 힐스테이트' 건설한류 이끈다

-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시청에서 남쪽으로 12km 가량 떨어진 하동 행정타운 신도시. 신도시 안쪽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외관의 한국식 고층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옴
- 하늘로 우뚝 솟아 있는 건물 통과 동 사이엔 크고 작은 공원이 꾸며져 있고 근사한 실외 수영장이 눈길을 사로잡음
-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넣어 지상엔 주차장이 보이지 않고 나지막한 별동엔 실내 골프연습장·헬스장·테니스코트 등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음
- 현대건설[000720]이 건설한 '베트남 하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이렇게 한국에서 보던 힐스테이트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옴



대한상공회의소

- 하동 힐스테이트는 지상 27~32층, 분양면적 102~168㎡ 규모의 아파트 5개동 928가구, 빌라 100가구 등 주택 1천여가구로 건설됨
- 2009년 현대건설이 투자법인 하띠이 RNC를 설립하며 사업을 시작해 지난 2013년 10월 완공됨
-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적용한 단지다. 그런 만큼 외관과 설계, 주민 편의시설 등도 국내 힐스테이트 수준으로 짐
- 기존 베트남의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식 타워형인 것과 달리 하동 힐스테이트는 이 나라 최초로 맞통풍이 가능한 한국식 판상형 구조에 3~4베어로 설계함
- 아직 도시가스 인프라 시설이 안돼 있어 바닥 온돌 난방은 불가능하지만 '중앙집중식 취사용 가스공급 시스템'을 갖춰 베트남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스통'을 없앴음
- 마감재는 국내와 같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고 베트남에서 보기 힘든 16mm 두께의 고급 새시도 설치해 현지 주택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음
- 그러나 베트남 경제 위기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이 쉽지만은 않음. 2010년과 2011년 실시된 1·2차 분양은 큰 화제를 뿌리며 높은 경쟁률로 완판됐지만 2011년 베트남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경기도 악화돼 이후 분양에서 미분양이 생긴 것임
- 이 때문에 2010년 1차 분양당시 ㎡당 1천 450달러(3.3㎡당 약 575만원), 2차에 1천 600달러까지 올랐던 분양가를 3차 때부터는 ㎡당 1천 290달러(3.3㎡당 약 510만원)로 최초 분양가 대비 10% 이상 인하함
- 현대건설의 적극적인 판촉 노력과 2013년 이후 베트남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현재 분양률은 95%까지 올랐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입주도 모두 마침
- 서덕열 베트남 힐스테이트 법인장은 "하노이 시내의 아파트 분양가가 ㎡당 2천~3천 달러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어서 베트남 부유층이나 개인, 법인 등이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다"며 "특히 분양 물량의 80%를 베트남 현지인들이 샀을 정도로 한국식 힐스테이트의 설계와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함
- 서 법인장은 "지난해 외국인들의 베트남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엔 연 5%대 중반의 수익률을 기대한 한국인 투자자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덧붙임
- 현대건설이 한국식 주거문화를 접목한 힐스테이트로 베트남에 '건설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면 하노이 도시에 건설한 공업전문학교에서는 한국의 '건설 안전 문화'로 한류를 전파하고 있음



-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005380]와 코이카, 플랜코리아 등과 함께 설립해 지난달 준공한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에서는 자동차 정비 기술과 더불어 베트남 국민에게 생소한 건설 안전 실무를 가르침
- 지난 9일 기자단이 방문한 건설안전학교에서는 20 세 안팎의 대학생들이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띠 테스트가 한창임
- 이들은 직접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안전장비들이 어떻게 흡수하는지 등을 체험함
- 학생들은 2인 1 조로 짝을 이뤄 공사중 추락했을 때 안전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험하기도 함
- 하노이 공업대학 기계학과에 재학중인 응우웬 안 투웬(20)씨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소홀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곳에서 선진화된 안전 문화와 요령들을 배움으로써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함
- 현대건설 베트남지사 김현준 차장은 "드림센터 완공으로 베트남에서도 이룬 중심의 건설 안전교육에서 실습형 교육이 가능해졌다"며 "건설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베트남에서 체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건설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출처: yonhapnews, 03.14

한국 CJ, 베트남 육가공 대기업 Vissan의 주식 4.18% 취득

- CJ Group Vietnam 의 Chang Bok Sang 사장은 3 월 10 일 CJ 가 이미 식육 대기업 Vissan 사의 주식 4.18%를 취득했다고 밝힘
- 최근 열린 공개 경매에서 10 만 2,000 동(약 4.6 달러)의 최고치에서 4.18%인 300 만주를 3,000 억동(약 1,364 만달러) 이상으로 인수함
- 전략적 투자가 될 기회가 있으면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고며 "제휴 가능하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수출하는 지원도 한다"라고 말함
- 이 회사는 올해 베트남 투자를 강화하고 5 억 달러를 식품 생명 공학 기술, 소매, 오락 등의 분야에서 M&A 와 새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M&A 는 식품 분야가 될 것으로 1 월에는 김치 브랜드 "Ong Kim"을 인수함



○ 소매와 농업에서도 파트너 찾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에서는 수출 촉진을 위해서 과일 생산 회사의 매수자를 찾고 있음

○ 농산품 원료 분야에서는 상품 전매와 냉장 창고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음. Ninh Thuan 성에서는 대규모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2015 년 12 월에 재배를 시작한 최초의 시즌은 올해 6 월에 수확하며 몇 년 후에는 한국의 고추가 베트남에서 다수 재배될 것으로, 이 회사가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료(6,000 만달러 상당)의 절반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바뀔 계획임

* 출처: Vinahanin.com, 03.18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베트남-미국 혁신창업 로드쇼

○ 지난 3 월 7 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하노이에서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관과 협력해 베트남-미국 혁신창업 로드쇼(Innovation Road Show)를 개최함

○ 이 혁신창업 로드쇼에 참석한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 테드 오시어스(Ted Osius)는 “혁신적인 창업정신은 미국과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테드 오시어스 대사는 이번 베트남-미국 혁신창업 로드쇼를 통해 베트남에서 창업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쩐반똥(Trần Văn Tùng) 차관은 2016 년 베트남과 미국 간 과학기술 협력은 기술혁신 촉진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쩐반똥(Trần Văn Tùng) 차관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에서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벤처투자 기금 설립 등에 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술혁신 사업, 기술창업 인큐베이터, 창업보육, 혁신기업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쩐반똥 차관은 “베트남은 선진국의 창업에 대한 경험을 배우고 싶다” 며 “미국은 창업 강국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라고 말함

○ 이어 쩐반똥 차관은 “베트남은 이번 혁신창업 로드쇼를 통해 미국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경험을 배울 수 있고, 베트남 기업들이 미국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라고 덧붙임



- 미국 국무부 장관의 고급 고문관 David Thorne 에 따르면 지난 25 년간 미국의 가젤 기업(새로 생긴지 5 년 이하의 기업을 뜻하는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음
 - 고문관 David Thorne 은 “미국은 정말 창업 천국이며, 미국의 혁신적 창업을 세계에서 널리 알리고 있다” 라고 밝힘
 - David Thorne 고문관은 창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미국은 베트남의 창업에 대해 지원해주고 창업을 도와줄 수 있다며 “베트남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프로그램과 대학교 영재인큐베이터 건립은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평가함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2016 년에 기술창업 Tech Fest 제 2 차 축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동시에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벤처투자 기금 설립 등에 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계획임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6

베트남, 자본시장 개발과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위해 IFRS(국제회계 기준) 필요

- 베트남 투자계획부와 세계은행이 만든 ‘베트남 2035’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 시장 개발과 FDI(외국인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회계 기준이 IFRS(국제회계 기준)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보고서에 따르면, IFRS 를 적용하는 것은 베트남 2035 비전이 향하는 길과 같으며, ASEAN 정책과 글로벌화를 통한 타 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임
-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베트남은 AEC(아세안경제공동체), FTA, TPP 협정 등을 통한 광범위한 경제 통합을 이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또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G20 이나 세계은행(WB), IMF(국제통화기금), FSB(국제금융안정위원회),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에서도 모든 국가들이 IFRS 를 적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 IFRS 를 적용할 경우 세계 경제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회사의 내외부 정보에 대한 오차를 감소시킴으로써 회사의 재무 정보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게 됨



- 또 IFRS 는 기업가, 신흥 시장 모두 선진국에 적용되는 글로벌 표준 및 신뢰성을 가진 범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감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재무 재표 발표에 대한 비용 절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
- 최근 10 년간 IFRS 적용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편화되었는데, 베트남은 대부분의 기업이 베트남 기준인 VAS 를 적용하고 있음
- 재무 재표 작성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 상장된 기업이나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만 IFRS 적용한 재무 재표를 보고하게 되어있음
- 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와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IFRS 를 적용해 명백하고 정확한 재무 재표를 보고해 신용을 얻어야 한다고 밝힘
- 이사회 위원이자 베트남 딜로이트 회장인 하 투 탄(Hà Thu Thanh)회장은 “현재 급속하게 글로벌화 되어가는 지금, IFRS 적용이 통과할 경우 베트남 경제나, 베트남 각 기업들이 여러 경제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며” 예를 들어 자본 유치가 수월해 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회사 감사 직원에 능력 또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
- 국제표준회계위원장인 Hans Hoogervorst 씨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든 현재 표준 회계 기준을 IFRS 로 적용하려고 준비 하고 있으며, 각 나라 환경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조정을 하지 않는 원천 IFRS 표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면서” 베트남도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원천 IFRS 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또 저희 국제 표준회계위원회는 베트남 IFRS 적용 단계에 따른 문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6

해외 펀드 PDR(부동산 개발 주식회사 팻닷)에 투자

-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 팻닷(công ty cổ phần Phát triển bất động sản Phát Đạt)과 일본 Creed Group 펀드, 안자 인베스트먼트(công ty An Gia Invesment) 등 3 자가 협력하여 리버시티 프로젝트(총 12 개동 아파트에 약 8,000 채의 주거공간, 오피스텔, 슝 하우스가 포함)를 진행함



○ 계획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호치민시 442 다오찌, 7 군(442 Đào Trí, phường Phú Thuận, Quận 7, TP.HCM)이 유력하다고 밝혔으며, 총 면적 11.25ha 에 건설 밀도가 23.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면적 같은 경우 47m²~122m² 로 면적이 다양하다고 전함

○ 2015 년 안자 인베스트먼트에 약 2 억 달러에 이르는 부동산 투자를 단행한 일본 Creed Group 펀드는 이번 프로젝트에도 협력 투자에 나섬

○ 이에 대해 일본 Creed Group 회장인 Toshihiko Muneyoshi 씨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정말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Creed Group 은 약 10 년간 연구와 시장 조사를 한 결과 베트남에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부동산 시장 형성과 발전 부분이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기업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전함

○ 이어 그는 “저희 Creed Group 은 일본, 싱가포르에서의 부동산 개발 경험을 토대로 파트너인 안자 인베스트먼트와 PDR사와 공유하여 베트남에 아파트 프로젝트를 전개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호치민시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6

호치민시, 미국 투자 물결 기대

○ 레타잉리엠(Lê Thanh Liêm)시 부주석은 지난 7 일 호치민시 지도부와 미국 총영사관,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함께한 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호치민시 정권이 미국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 물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레타잉리엠 부 주석은 베트남-미국 간의 관계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호치민시는 AmCham 과 미국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호치민시의 경제, 사회 발전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에 따라 호치민시 정권은 행정 수속 절차를 개혁하여 외국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함



대한상공회의소

- 이번 지도부 회담을 통해 호치민시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시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 양측 모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함
 - 레나 비터(Rena Bitter) 호치민시 미국 총영사는 “호치민시 정부가 지난 시간 동안 미국 기업들에게 편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일에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다” 며 “특히 이번 회담을 주최하여 많은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 고 답함
 - 그러면서 그는 2016 년은 베트남-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이며, 동시에 양국 기업들에게 수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늘 베트남의 세계 경제통합 과정과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함
 - 이어 레나 비터 총영사는 “TPP 협정과 다른 자유무역협정 등이 베트남에서 효력을 발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미국 투자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며 “미국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호치민시 정권이 미국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함
 - 호치민시 투자계획부는 올해 첫 두 달간 미국으로부터 4 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였으며, 총 투자금액은 150 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2 월 달까지 미국기업은 호치민시에서 총 321 개의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총 투자자본은 6 억 3000 만 달러에 달함
 - 이는 호치민시에서 진행 중이고 효력이 남아있는 많은 국가들의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자본 규모 중, 12 번째로 큰 규모임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6

구직자에게 우량 기업 톱 100, Unilever가 1위 유지

- 베트남 최대 기업 관리자용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을 운영하는 Anphabe 와 시장 조사 회사 닐슨·베트남(Nielsen Vietnam)은 11 일 "2015 년 베트남인 구직자에게 우량 기업 톱 100"을 발표함



○ 이 조사는 ◇ 급여·상여금·복리 후생 ◇ 성장 기회, ◇ 경영진, ◇ 직장 환경, ◇ 워크 라이프 밸런스, ◇ 지명도 등 6 가지 지표에 관한 46 개 요소로 전국의 회사원 2 만 2688 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기업을 단계화한 것임

○ 이 랭킹 톱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정 용품 업체 유니 레버(Unilever)로 성장 기회와 경영진이 높이 평가됐다. 2 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현지 유제품 제조 업체인 비나밀크(Vinamilk)로 급여·상여금·복리 후생이 높이 평가 됨

○ 이어 ◇ 3 위:네슬레(Nestlé)◇ 4 위:프록터 앤드 갬블(P&G), ◇ 5 위:아이비 엠(IBM)◇ 6 위: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 ◇ 7 위:펩시 콜라(PepsiCo), ◇ 8 위:베트남 군대 통신 그룹(Viettel Group=베트텔)◇ 9 위:산토리 펩시코·베트남·음료(Suntory PepsiCo Vietnam Beverage), ◇ 10 위:애벗(Abbott)등임

○ 또한 이번에는 톱 100 에는 현지 기업 22 개사가 포함. VNM 과 베트텔 외, ◇ Bao Viet Holdings, ◇ FPT 정보 통신(FPT Holdings), ◇ 빈 그룹(Vingroup)등이 포함 됨

○ 이 조사 결과 구직자가 요구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보충된 안정된 일","캐리어와 승진","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충분한 급여","육성과 성장 기회"등 5 가지로, 급여·상여금·복리 후생도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짐

* 출처: vinahanin.com, 03.15

태국 SCG, 베트남의 플라스틱 시장 지배,인수 통 자금 60억 달러

○ 9 일 베트남 넷에 따르면 플라스틱, 고무 업계의 회의가 최근 호치민시에서 열리고 이 가운데 태국의 사이암(Siam)·시멘트·그룹(SCG)이 60 억달러라는 풍부한 자금으로 베트남 기업을 산하에 두고 2020 년까지 베트남의 플라스틱 업계를 지배 할 것이라는 관측이 관계자로부터 나옴

○ 베트남의 플라스틱 업계는 외국계 기업의 주도로 최근 매년 20~25%의 성장을 기록. 그러나 약 2000 개 기업의 90%는 중소 규모로 유력 외국 기업과 단독으로 경쟁할 만한 자금, 기술, 노하우를 갖지 못하고 있음

○ 시암은 지난해 7 월 일본의 골판지·판지 제조·판매의 렌고(Rengo)와의 합작 기업을 통해서 베트남의 일용품·식품 포장용 수지 필름 제조 대기업 Tín Thành 패키징(BATICO, 롱 안 성)의 주식 80%를 4440 만달러에 취득함



- BATICO 는 연간 2 억 3000 만㎡를 생산한 업계 Top 5 중 하나로 남부 지역에서 4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고객 기업은 네슬레와 바이엘 헨켈 듀폰 등 대기업이 총망라 됨
 - 이에 앞서 시암은 NGHE TIEN PHONG, BINH MINH 이라는 플라스틱 2 개사의 주식을 각각 23.84%, 20.4%취득. 양사는 플라스틱 구조 파이프 시장에서 총 50%의 점유율을 갖음
 - 그러나 현재까지 시암이 인수에 쏟아 부은 돈은 60억 달러를 기준으로 볼 때 예산 중 1억 2100 만달러에 불과하고, 산하에 넣은 기업도 7 개사에 그침
 - 한편 참가자는 시암은 베트남 시장에 재빨리 참가했다가 지난해 말 출범한 동남아 국가 연합(ASEAN) 경제 공동체(AEC)나, 합의를 마친 환 태평양 동반자 협정(TPP)등을 주시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후발 진입 기업들도 많아진다고 지적. 앞으로 인수 경쟁이 격화 될 것이라고 지적 함
- * 출처: vinahanin.com, 03.13

파리 공항 공단 7%출자, 일본의 ANA도 관심 갖는 베트남 항공사

- 10 일 베트남·인베스트먼트 리뷰(전자판)에 따르면 공항의 관리·운영을 실시하는 베트남 항공사(ACV)는 프랑스 파리 공항 공단(ADP)에 주식의 7.4%인 1 억 6600 만주를 매각하고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한다고 16 일 열리는 주주 총회에 의견을 구함
- ACV 는 지난해 12 월에 주식의 신규 공개(IPO)을 갖고 20%를 전략적 투자자에 팔려던 것을 ADP 에 매각한 뒤 나머지 12.6%의 매 각처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일본의 ANA 홀딩스와 접촉이 관측되고 있다고 함. ACV 주식의 75%는 여전히 정부가 보유하고 있음
- ACV 의 전략 제휴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의 창이 에어 포트 인터내셔널, 베트남 투자 개발 은행(BIDV)등도 참여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ACV 의 회장은 올해 1 월 교통부의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ADP 뿐이라고 밝힘
- ACV 는 2016-20 년 이 회사의 공항 이용객은 연간 6~8%, 화물은 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대한상공회의소

- 향후 5년 주요 사업으로는 동나이성 룡탄 국제 공항 건설로 동사는 2025년 제 1기 공사 완성을 위해 114조 5000억동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함
- 총액 336조 6000억동의 룡탄 공항 건설 사업에는 일본도 관심을 두고 있어 터미널 건설에 정부 개발 원조 자금을 대는 일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출처: vinahanin.com, 03.13

◆ 베트남기업 동향

젯스타 퍼시픽, 새로운 결제 수단 payoo 선보여

- 젯스타 퍼시픽은 24시간 주말을 포함한 평일에도 결제가 가능한 Payoo 현금 결제 시스템을 승객들에게 선보인다고 전함
-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7일부터 젯스타 퍼시픽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항공권 구매가 가능함
- payoo 결제 시스템은 POS를 이용한 현금 결제서비스 방식으로 약 3,000개의 POS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B'smart, Circle K, Ministop, FamilyMart, Guardian, Vinpro, Nguyễn Kim, Media Mart, Phúc Anh Mobile, FPT Shop, Viễn Thông A, Chợ Lớn, CoCoMart, Citimart 등 24시간 편의점에도 설치되어 있어 바로 결제가 가능함
- 이러한 새로운 결제 수단은 주식회사 다이렉트 서비스 공동체 베트남사 (VietUnion)사와 젯스타 퍼시픽사와의 협력을 통해 탄생함
- 젯스타 퍼시픽사의 항공권 예매를 원할 경우 웹사이트인 www.jetstar.com에 접속해서도 예매가 가능하며, 핫라인 1900-1550(24시간)을 통해서도 예매가 가능함
- 고객들은 웹사이트나 핫라인을 통한 예매를 진행한 후 결제 방식에 대해서 payoo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예매한 항공권 가격, 좌석 번호, 예매자 이름을 기억한 후 payoo 결제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영업장에 가서 결제를 하면 됨
- 젯스타 퍼시픽 CEO인 레 황 하(Lê Hồng Hà)씨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이번 새로운 결제 방식은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위한 것임



- 고객들은 결제 때문에 은행에 갈 필요가 없고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결제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했으며 현금 결제 하는 고객들도 간편하게 결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함
- 젯스타 퍼시픽은 이러한 payoo 를 통한 결제 수단을 알리기 위해 payoo 사와 협력을 통해 프로모션을 진행함
- 구체적으로 2016 년 3 월 7 일부터 4 월 7 일까지 승객들이 payoo 서비스와 연계된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방문하여 결제할 경우 고객들은 50,000 동의 휴대폰 요금카드를 얻을 수 있음
- 특히, 3 월 8 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젯스타 퍼시픽은 국내외 27 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8,300 개의 항공권을 83,000 동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3 월 8 일 0 시 1 분부터 23 시 59 분 까지 온라인 결제를 하는 고객들에 한해 무료로 항공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전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6

중앙은행, 2016년 통화정책 수행 지시서 발행

-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2016 년 통화정책 실시 및 은행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01/CT-NHNN 호 지시서를 발행함
- 이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는 지정된 인플레이션 통제 목표 달성, 경제의 거시적 안정 보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 유지 등을 위해 중앙은행 산하기관, 금융기관과 외국은행 지점들이 2016 년 통화정책 실시 및 은행권의 효과적 안전한 활동 보장에 관한 지시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함
- 구체적으로 2016 년 인플레이션을 5% 미만 통제, 거시적 경제 안정성 유지, 경제성장률 6.7% 달성,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경제의 유동성 보장,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 여러 가지 목표를 공시함
- 또 중앙은행에서 01/CT-NHNN 호 지시서를 통해 2016 년 신용대출 증가율은 실제 상황에 따라 18~20% 범위 내에서 조절할 것이고, 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부실채권 처리 대책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부실채권 비율을 총잔여채권의 3%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지시함



○ 중앙은행 총재의 01/CT-NHNN 호 지시서는 2016 년 2 월 23 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짐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6

페트로 베트남, 자회사 PV오일 주식의 최대 25% 매각

○ 국유 석유 회사 페트로 베트남은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거래를 하는 자회사 PV 오일 주식의 최대 25%를 매각할 전망이다. 계획 투자부의 뉴스 사이트" Đầu Tư(투자)" 정보를 인용 7 일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함

○ PV 오일의 부사장은 이 사이트에서 기업 가치 산정이나 주식을 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전략 파트너에게 직접 매각 할지 등 민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함

○ 계획은 제 3 분기에 승인되어 제 4 분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함. PV 오일은 세계적인 원유 가격의 침체에 타격을 받아 1 월에만 1000 억동(442 만달러)의 적자를 계상했다고 지난 달 발표했다. 연간 매출액은 12.6% 줄어든 42 조 8000 억동(18 억 9000 만달러)을 예상하고 있음

* 출처: Vinahanin.com, 03.13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비정부기구 원조활동 외국인 전문가들 개인 소득세 면제 받는다

○ 2016 년 2 월 22 일 정부총리는 베트남 내에서 국제 비정부 기구의 원조 활동을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에 관한 06/2016/QĐ-TTg 호 결정서에 서명함

○ 이에 따르면 국제 비정부 기구와 베트남의 원조 프로젝트 주관기관 간에 합의한 국제 비정부기구의 원조 활동에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개인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이 외국인 전문가는 개인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1)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것,



2) 국제 비정부기구 또는 원조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베트남의 기관 등과 체결한 노동계약서가 있는 것임

○ 단, 외국인 전문가가 국제 비정부기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당 원조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베트남의 원조 프로젝트 주관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함

○ 또 정부총리의 결정에 의하면 외국인 전문가의 개인소득세의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 비정부기구의 원조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됨

○ 위 06/2016/QĐ-TTg 호 정부총리의 결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짐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6

익스피디아, 베트남 다낭 호텔 50곳 할인 판매

○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는 최근 인기인 베트남 다낭(Da Nang)의 인기있는 호텔 50 곳을 할인한다고 17일 밝힘

○ 23일까지 예약해야 하며 여행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임. 사노우바 다낭 호텔은 6만 2천 283원부터, 브릴리언트 호텔은 8만 7천 196원부터, 아 라카르테다 낭 비치는 11만 5천 763원부터, 멜리아 다낭은 15만 1천 419원부터, 빈펄 다낭 리조트 앤(&) 빌라는 21만 3천 875원부터임

○ 홈페이지(http://www.expedia.co.kr/danang)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약할 수 있음. 한편, 다낭은 베트남의 하와이로 불리며 자연이 아름다운 신규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음

* 출처: yonhapnews, 03.17

호치민시 인프라 발전을 위한 PPP(민간투자사업)유치 주목

○ 평균적으로 2020년까지 호치민시는 교통 인프라 발전을 위한 약 50조동의 자본금이 필요함

○ 하지만 국가 예산은 필요 자본금 요구의 작은 부분만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인프라 시설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며, 여기에 PPP(민간투자사업)가 주목받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

- 호치민시 인프라 발전을 위한 자본금은 3 개의 예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신용예산, 국가 금융 기관 장기 예금 예산, 국내외 경제 분야 투자 자본금 예산 등임
- 그 중 3 번째에 국내외 투자 사업자와 정부가 협력하는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음
- 구체적인 사례로 2010 년부터 이러한 형태로 인프라 개발을 하고 있는 유한회사 정부금융투자 호치민시(이하, HFIC)를 예로 들 수 있음
- 국내외 신용기관과 제휴 협력을 통한 자금 동원과 도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대출 약정 및 유동자금으로 현재까지 9 조 26 억 동이 집행됨
- HFIC 의 해외 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외에 호치민시는 국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PPP 사업을 장려 하고 있다. 동시에 자본금 유치와 모든 경제 분야에 대한 PPP 투자 형태, 능력, 경험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2016 년 호치민시-교통혼잡과 교통사고 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대형 교통 공사가 필요한 미 투이(Mỹ Thủy)교차로, 안승(An Sương)터미널, 빈띠엔(Bình Tiên)다리, 2 차 순환도로 건설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호치민시 개발 연구 소장인 전 안 뚜엣(Trần Anh Tuấn)씨는 “국내외 투자 자본금 유치를 위한 민간 사업자와 국가가 협력하는 형태에 대한 사업을 위해 정부는 15/2015/ND-CP 시행령을 선포했으며, 이것은 PPP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면서” 시행령 제 30 조는 PPP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를 선정하는 법정 규정을 담고 있음
- 이러한 시행령들은 PPP 투자 형태로 가기 위한 시행령이며 이전에는 이러한 시행령이 없었다. 또 호치민시는 인프라 개발 발전을 위해 PPP 형태에 대한 구조정책 대안을 구축했으며, 이러한 부분은 시행령 제 15 조를 통해 극대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함
- 하지만 호치민시 교통운송부에 평가에 따르면, PPP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토지 인수가 지체될 경우 프로젝트 진행 시기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으며, 지체에 따른 물가 상승 리스크 등이 있다고 지적함



- 토지 보상 기금 같은 경우 대부분 작고,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토지를 인수하기도 전에 총 투자 자본금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함
 - 그렇기 때문에 PPP 사업 형태에 따른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호치민시는 여러 해결책을 동시에 내놓아야하며 원래 투자 계획에 따라 투자금을 국가 예산으로 돌리려 하는 경우, PPP 형태로 투자 요구하는 방법, PPP 형태로 구현될 선도적인 프로젝트 선택, PPP 투자에 대한 정부의 법령에 따라 구현하는 방법, 세금 혜택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함
 - 또 PPP 형태에 따른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함
 - 호치민시 계획투자부는 현재 PPP 사업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의 제안서를 받고 있으며, 호치민시 계획투자부는 제안서에 대해 검토하고 통합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호치민시에 전개될 PPP 형태의 프로젝트들은 양측 투자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투명함과 정책 우대, 자본 사용 위험 리스크비용과 국가와 민간투자자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6

2015년 국가예산 적자 256조 VND

- 지난 3월 7일 개최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2015년 경제-사회 개발 실적 및 2016년 사업계획 보고’ 및 ‘2016 ~ 2020년 간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 보고’에 따르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속에서도 국가예산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국가예산 수입은 996조 8700억 동(VND)으로 예상 목표치 보다 85조 7700억 동(VND) 정도 증가함
- 2015년 국가예산 총 지출액은 1,262조 8700억 동(VND)에 달해 목표치 대비 10.1% 증가했고, 국가예산 적자 금액은 256조 동(VND)임



- 이 보고에 의하면 2015 년 베트남의 GDP 대비 국가예산 적자 규모는 6.1%로 국회에서 통과된 목표치(226 조 동, GDP 대비 5%) 대비 증가함
 - 2015 년 말 기준 GDP 대비 공공부채 규모는 62.2%에 달했다. 그 중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50.3%이고, 국가의 외채 규모는 43.1%임. 한편, 보고에 따르면 2015 년 사회 전체의 총 투자는 1,367 조 2000 억 동(VND)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함
 - 2015 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행 자본금은 145 억 달러(USD)로 2014 년 동기대비 16% 증가했고, 당초 계획보다 11.5% 초과 달성함
 - 또 2015 년 공적개발원조(ODA) 및 우대신용대출 실행 자본금은 46 억 달러(USD)로 전년의 81.3% 수준에 머물렀음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6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 적용

- 베트남 상공부는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 적용에 관한 862/QĐ-BCT 호 결정을 공포함
- 이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따르면 강괴(steel ingot)제품과 롱 스틸(Long steel)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각각 23.3%, 14.2%임.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최대 200 일 동안에 적용함
- 이에 앞서 2015 년 12 월 25 일에 베트남 상공부는 Hoa Phat Steel JSC, Southern Steel Co.,Ltd, Thai Nguyen Iron and Steel JSC, Vietnam-Italy Steel JSC 사를 포함한 4 개 철강 기업의 요청에 따라 강괴 제품 및 Long steel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위한 14296/QĐ-BCT 호 결정을 발표함
- 위 14296/QĐ-BCT 호 결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 품목은 HS Code 7207.11.00, 7207.19.00, 7207.20.29, 7202.20.99, 7224.90.00, 7213.10.00, 7213.92.20, 7214.20.31, 7214.20.41, 7227.90.00, 7228.30.10, 9811.00.00 임
- 2015 년 12 월 30 일에 세이프가드 조사 담당 기관은 관련자들에게 조사 설문지를 송부했고, 2016 년 1 월 29 일부터 2 월 23 일까지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6

외화의 수취 및 지급 서비스 안내

- 최근 중앙은행은 외화의 수취 및 지급 서비스 안내에 관한 34/2015/TT-NHNN 호 통지서를 발행함
- 이에 따르면 외화 수취 및 지급의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승인 권한은 다음과 같음
 -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우편 공사(Vietnam Post)의 외화 수취 및 지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승인서 및 외화의 수취/지급 대리점 등록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함
 - 각 지방(성 또는 시)에 있는 중앙은행 지점들은 그 지방에 본사를 두는 경제조직 또는 금융기관의 외화 수취 및 지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승인서 및 외화의 수취/지급 대리점 등록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함
 - 외화의 수취/지급을 허가 받은 금융기관은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음
- 또 34/2015/TT-NHNN 호 중앙은행의 통지서에 따라 외화 전용계좌 개설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음
 - 외화의 수취 및 지급 서비스를 직접 실시하는 경제 조직은 본사를 두는 지방에 있는 상업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에서 외화 수취/지급을 위한 외화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함
 - 경제 조직은 외화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에서 송금 받는 것, 수취자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것, 외화를 다른 외화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 수취자에게 외화를 베트남 동화(VND)로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매각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34/2015/TT-NHNN 호 중앙은행의 통지서는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짐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6

베트남 2월 무역 수지 1.9억 USD 적자, 연초 2개월간은 흑자 유지

- 베트남 세관 총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 년 2 월 수출액은 전월비 24.4% 감소의 100 억 9900 만 USD, 수입액은 동 18.3% 줄어든 102 억 8900 만 USD 임



- 이로써 2월 무역 수지는 1억 9000만 USD의 적자이다. 지난 달 무역 수지는 7억 6600만 USD의 흑자임
- 2월은 테트(설날)의 장기 휴업을 맞아 수출액, 수입액 함께 전달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단, 연초 2개월간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236억 8300만 USD, 수입액은 동 5.7%감소의 230억 0800만 USD. 이로써 올 초 2개월간의 무역 수지는 6억 7500만 USD 흑자임
- 연초 2개월간의 수출액 가운데 품목별로 금액이 가장 컸던 것은 "휴대 전화 부품"의 47억 0816만 USD로 전년 동기 대비 +13.0%증가. 반면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은 "컴퓨터·전자 제품·부품"의 38억 9287만 USD로 전년 대비+9.2%증가함
- * 출처: vinahanin.com, 03.17

베트남 제화 업계 발전 계획 짜지만 급격한 성장에도 국제 경쟁에 대응 미흡

- 베트남 국가 주요 산업 중 하나인 피혁 제품이나 신발 제조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장기 계획 재검토의 필요성을 베트남 가죽·구두 핸드백 제조자 협회(LEFASO)가 지적했다. 종래의 계획이 제화 업계의 눈부신 수출 확대와 제조 기술 혁신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임
- 베트남은 피혁 제품과 신발 제조 분야의 발전을 돌아면서 2020년에 목표를 정한 발전 계획과 2025년 전망을 담은 업계의 발전 계획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10년간 이 분야는 매년 15-20%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계획이 현재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업계의 기초를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음의 비약적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계획 책정이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급격한 무역 확대

- 베트남 가죽·구두 핸드백 제조자 협회(LEFASO)의 사무국장에 따르면 업계의 총 수출액은 2015년에 149억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 미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43%, EU(유럽 연합)가 이어 2위임
- LEFASO의 회장은 "베트남이 몇가지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을 마쳤을 무렵부터 특히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 이후 해외 자본에 의한 피혁 제품과 신발의



대한상공회의소

생산량이 확대됐다"라고 지적. 그리고 동시에, 원재료의 피혁 수입은 9%, 가공 자재 수입도 28% 각각 증가함

○ 이들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은 해외에서 대량 주문 획득에 크게 힘을 발휘했다. 예를 들어 올해 1 월에는 대형 수출입 기업이 5000 만 달러 규모 주문의 외주처를 뚫어 LEFASO 의 협력을 요청했다. 올해도 피혁 제품·구두의 수출은 15%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핸드백, 우산, 모자 등도 13%의 수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체의 2016 년 수출 총액은 170 억달러로 예상됨

▲ 급속한 발전 계획 재검토를

○ 그러나 눈부신 발전의 한편 경제의 국제 통합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FDI)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동업의 베트남 자본 기업은 뒤지고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임

○ 예를 들면 생산성으로 비교하면 외국계 업체의 생산성은 베트남 국내 기업들 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

○ 또 신발 제조 기술은 최근 급속히 발전 변화하고 있다. 진짜 가죽 제품 신발의 본체 제조는 50% 감소하고 구두 위의 부품과 구두를 만들 경우에도 기존의 압착, 접착 기법은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새로운 방법들이 채용되고 있음

○ "이들 새로운 제조 기술은 외국계 기업에서 이미 채용되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혁에 베트남 자본의 제화 회사들도 따라가지 못하면 향후 국제 통합의 혜택을 앞두고 해외 자본 기업들에 맞설 수 없다"라고 LEFASO 회장은 경종을 울리고 있음

○ 베트남 제화 업계의 발전 비전이 시대와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획 정책이 급선무이다. 2015-2020 년까지 2020-2025 년까지 2 단계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회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함

○ 회장의 의견으로는 최초 2015 년부터 5 년간은, 업계에서 원자재 생산과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또, 가죽 제품 제조와 제화에 특화된 공업 단지를 국내에 3,4 곳 개설하고 제조업자 간의 연계 ▽ 원자재 공급 루트 개척 ▽ 수출 촉진과 해외 시장 개척 등의 측면에서 더욱 업계 내에서 제후를 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상공부의 부장관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상공부는 피혁 제품이나 신발 제조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공업국에 LEFASO 와 연계하여 현재의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언급." 새로운 현상에 보다 적합한 계획을 신속히 책정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라고 말함

* 출처: vinahanin.com, 03.13

전력 공사, 건기 전력 공급 대비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에 차질 우려

○ 엘니뇨의 영향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저수지의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소의 발전 능력 저하가 우려됨

○ 4~6 월 건기는 전력 수요의 피크와 겹치기 때문에, 베트남 전력 공사(EVN)은 전국 351 곳에 전선 총 연장 4800 킬로미터를 배치 현지에서 발전 용량을 110 킬로볼트(kV)에서 500kV 로 끌어올리는 공사를 하는 등, 공급에 고심하고 있다고 베트남 언론이 보도함

○ EVN 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발전 능력은 3 만 8800 메가 와트(MW)지만, 실제로 발전에 투입되는 것은 3500MW 정도의 화력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음

○ 가뭄에 의한 중·남부의 물 부족 때문에 건기의 전력 공급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 전력 공급 지령 센터의 부소장에 따르면, 중부, 중부 고원 지역의 수력 발전소의 저수량은 통상과 비교 64 억 9000 만 입방 미터 적으며 공급 전력량은 32 억 2000 만킬로와트/시(kW/h) 부족이 예상됨

○ 이 때문에 경제 활동에 사용하는 25 억 kWh 의 전력 공급용으로 화력 발전용 석유 사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EVN 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5 년 말 시점의 발전 능력은 3 만 8800MW 으로 2016~20 년의 기간 중 전력 수요는 연간 11~1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EVN 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 년간 600 조동(266 억달러)을 투입하여 발전소 신설과 송전 시설 사업 등을 실시할 방침임

* 출처: vinahanin.com, 03.13



고속 도로 망 발전 계획 승인, 2020년까지 총 연장 6500km

- 응웬 쩐 중 수상은 최근 "2020년까지 베트남 고속 도로 망 발전 계획 및 2030년까지 비전"을 승인함
- 이것에 따르면 2020년까지 베트남 국내 고속 도로를 21개 노선 총연장 6411km까지 확충함
- 구체적으로는 ◇ 남북 고속 도로 2개 노선(총 연장 3083km:동쪽 1814km, 서쪽 1269km), ◇ 북부 14개 노선(총 연장 1368km), ◇ 중부·중부 고원 지방 3개 노선(총 연장 264km), ◇ 남부 7개 노선(총 연장 983km)등임
- 이 계획은 국가 고속 도로 망을 정비하고 중점 경제 중심지로 주요 국경 검문소, 중요 교통 허브의 연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 중, 호치민시, 하노이시 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의 3대 도시와 대규모 항만에 이어지는 노선과 남북 고속 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고 하고 있음

* 출처: Vinahanin.com, 03.12